

미국 장로교 제 53차 총회에 대한 서기의 요약과 속고

교회 사역을 축하하고 전진시키기 위해 모이다

오하이오 벨리 노회는 제 53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00여 개의 교회로부터 켄터키주 루이빌을 방문한 2,456명의 장로들을 환영해 주셨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637명의 강도장로와 819명의 치리장로가 참석하였는데, 이는 총회 역사 상 가장 많은 총대 치리장로의 기록이며, 2005년 이후 총대 총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신 것처럼 환영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총회는 불일치나 논쟁, 슬픔과 심각한 순간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한 주간 동안의 전반적 분위기는 건설적인 참여와 교회 사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지속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총회는 화요일 저녁 예배를 드린 후에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 개최되어, 연례 총회장 선출과 신규 서기 선출을 시행하였습니다. 총회는 갈보리 노회에서 오랜 기간 치리장로로 섬겨 온 멜 던컨 장로를 총회장으로, 그리고 휴스턴 메트로 노회의 프레드 그레코 목사를 서기로 선출하였습니다. 던컨 장로의 교회 사명에 대한 헌신과 의사 진행을 이끈 경험은 질서와 협동심을 촉진하였고, 이는 목요일 오후 조기 폐회를 가져왔습니다.

교회 사역

우리 위원회와 기관들의 보고는 교육, 선교, 협력 및 목회적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선교 위원회(MTW)는 10년에 걸친 1% 기도 운동의 결실을 축하했습니다. 참여한 교회들의 성인 교인 중 1.9%가 2016년부터 2026년 사이에 파송되어 전 세계 타문화권 선교지에서 사역했습니다. 세계 선교 위원회는 계속해서 지도자와 건강한 팀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제네바 혜택 재단(Geneva Benefits)은 지난 수 년에 걸쳐 문서관리를 피델리티(Fidelity)로 이전하였고 (수수료 10% 절감), 도움이 필요한 목사님들과 미망인들에게 762,635 달러의 구호금을 지급하였으며, 릴리 재단(Lily Endowment)으로부터 목사 복지를 위한 320만 달러의 기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재정이 부족한 교회들을 위한 안식년 자금 109,000 달러 이상 포함). 모든 지교회에 두 가지 행동을 요청드립니다: 제네바의 서비스를 활용하시고, 또 신실하게 사역해 오신 분들을 돌보기 위한 목사 구호 기금(Ministerial Relief Fund)의 유지를 위한 연례 “돌봄”(Look After) 헌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자 사역 위원회(CDM)가 금년 봄에 주최한 어린이 지도자 및 여성 사역 지도자를 위한 모임은 정원을 초과했으며, 이번 가을에는 남성 및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자 사역 위원회는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하여 다른 위원회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커버넌트 신학교(CTS)는 70년 사역을 축하하며, 미국 장로교를 위하여 차세대 목사, 사역 지도자, 그리고 상담가들을 양성하도록 위탁된 청지기 직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커버넌트는 릴리 재단으로부터 학교 역사상 단일 기금으로는 최다 액수인 일천만 불에 가까운 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우리 교단 안팎의 목사들을 모집하여 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커버넌트는 현재 호주 시드니의 크라이스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캐머런 클로싱 박사가 2026-2027 학년도부터 조직신학 교수진에 합류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릿지 헤이븐 회관(RH)은 지난 10년 간 114,000 명 이상의 인원을 섬길 수 있었음을 축복으로 여기며, 2025년에는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길 차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캠프, 수련회와 사역 행사들에 13,711명이 참여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미국 장로교 안에 연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대비하여, 릿지 헤이븐은 교단에 필요한 저렴한 자료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서 그 수용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8백만 달러의 자본 확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오와주의 코노 캠퍼스에는 새 수영장을 완공하였고,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브레버드 캠퍼스에는 키즈 서밋에 가족 캠프 확장의 일환으로 예배당과 네 개의 가족 캐빈, 다섯 개의 캠핑 캐빈 및 두번째 호수를 완공했습니다.

학원 선교 위원회(RUF)는 미국 학생 사역 (RUF), 유학생 사역 (RUF-I) 및 국제 사역 (RUF-Global)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캠퍼스 사역을 통하여 매주 2만이 넘는 학생들을 섬길 뿐 아니라 (이는 2022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 32% 성장), 약 250명의 캠퍼스 사역자 출신들과 또 수천 명의 RUF 졸업생들이 지교회의 교인과 리더로서 함께 교회 개척자, 목사 및 교단의 직원으로 섬김으로써 지속적으로 미국 장로교 내의 리더십을 위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학원 선교 위원회는 2025년에 9개의 신규 사역을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장로교 재단(PCAF)는 1억 5,540만 달러의 기부금을 수령하였고, 1억1,550만 달러를 분배했습니다. 그 중 지교회들이 3,150만 달러를, 총회 위원회와 기관들이 770만 달러를, 그리고 다른 기독교 사역단체들이 7,64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작년에 총 자산은 21.4% (1억 900만 달러) 감소하여서 4억 달러가 남았습니다. 이는 거래 제한 조건에 걸린 변동성 높은 암호 화폐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재단은 계속해서 크리스천들이 세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을 지원하여 미국 장로교의 지교회들과 다른 사역 단체들에게 지급하는 후원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커버넌트 대학교(CC)는 지난 가을에 역대 최대의 신입생을 보내 주시고 또 오는 가을 학기에 등록할 학생 수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을 예상하여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캠페인 목표액인 4, 68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한 5,050만 달러의 기부금과 약정액을 모금하게 되어 기뻐하고, 새로운 캠페인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 재원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대학은 이러한 성장과 풍성한 후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위원회(MNA)는 2025년도에 54개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였고 교회 개척 평가회를 5회 시행하였습니다. ESL 및 난민/이민자 사역은 기록적인 56개의 ESL 신규 사역을 출범시켰고, 78회의 교육 집회와 16회의 심화 세미나를 열었으며, 교재 판매는 배가하여서 제자 사역 위원회(CDM) 서점의 최고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메타노이어 교도소 사역은 자원 봉사자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405명의 신규 수감자들을 섬겼는데, 이는 뛰어난 기존 교도소 사역과 통신 사역에 더하여, 전국적으로 400개의 교도소를 섬기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사역은 한국의 고신 교단과 협력하여 한국 여러 주요 도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고신 교단의 총회장, 사무총장, 상임 위원회 위원들 및 노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600명 이상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정 위원회(AC)는 제자 사역 위원회와 협력하여 헌법(BCO)의 원리, 구조 및 목회적 활용을 위해서 교회를 훈련하고 무장시키기 위한 영상 시리즈인 “사역을 위한 무장: 헌법의 기초 (Equipping for Service: BCO Basics)”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신학생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교 정치에 대해 명확성, 확신, 그리고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제 52차 총회의 지시에 따라 행정 위원회는 총회에 대해서, 그리고 장소 선정 등의 준비 활동들이 어떻게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핵심 요소들의 파악을 돕기 위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8월이나 9월에 제공될 예정이며, 모든 장로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연구 위원회들

기독교 민족주의에 관한 임시 (또는 연구) 위원회와 예배 모범에 관한 임시 위원회 모두 부분적 혹은 예비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들의 작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추가 기간 1년을 허락받았습니다. 기독교 민족주의 임시 위원회는 내년에 더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목회적 지침을 제공하고 또 허용 가능한 신학적 다양성의 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부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보고서는 <https://pcaga.org/christiannationalismrepor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 모범 임시 위원회는 예배 모범의 개정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내년에 최종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https://pcaga.org/dfwrepor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는 인공지능(AI)에 관한 임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특히 인간론(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 7) 및 교회론(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에 관하여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표준의 가르침에 대해 보고하고, 교회 내에서 인공 지능 기술의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제안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생명을 위하여, 이 위원회들과 그들의 중대한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BCO)과 총회 운영 세칙(RAO) 개정안들

우리 교단 헌법(BCO)의 개정은 총회 과반수의 찬성과, 노회의 3분의 2의 조언과 동의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기 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제 52차 총회는 13개의 헌법 개정안을 노회에 송부하였는데, 그중 10개가 최소 3분의 2 노회의 승인을 받아 제 53차 총회에 상정되었고, 이중 9개 개정안이 최종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헌법(BCO)에 반영되었으며, <https://www.pcaac.org/book-of-church-orde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헌법(BCO) 12-3 개정: 사법 재판 시 당회가 당회원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허용
- 헌법(BCO) 18-2 개정: 언더 케어 신청 절차에 유연성 허용
- 헌법(BCO) 24-1 개정: 직원 후보로 공천된 자들을 시취할 때의 당회의 역할을 명확히 함
- 헌법(BCO) 31-10 개정: 재판 과정 중 직원의 공식 직무를 행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치리회 전체의 표결을 요구
- 헌법(BCO) 35-9 개정: 재판 심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기록하도록 요구
- 헌법(BCO) 36-4 개정: 유기 정직의 시행을 위한 문구를 추가
- 헌법(BCO) 36-5 개정: 정직에 관한 문구를 헌법(BCO) 37-3과 일치시킴
- 헌법(BCO) 36-8 및 42-2 개정: 완전히 새로운 재판 없이 책별 수위 격상을 허용
- 헌법(BCO) 41-3 개정: 당회 재판 시 보조 판사들을 허용

헌법 연구 위원회는 총회가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편집상 오류로 판정함에 따라 “본 표준문서들에 해석된 바대로”라는 문구를 헌법(BCO) 29-1에 복원하였습니다.

헌의안에 대한 결정 사항

총회는 새로 제출된 90건의 헌의안과 2025년 제 52차 총회로부터 이월된 한 건을 포함한 역사적인 수의 헌의안을 다루었으며, 이 중 20개의 헌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7개의 헌법(BCO)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개정안들을 노회의 조언과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각 노회에 보내졌습니다 (헌법 26-2). 해당 개정안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caac.org/dashboar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총회 운영 세칙(RAO) 개정안 2건도 통과되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한 건은 국내 선교 위원회(MNA) 보고서에 교회 개척자 평가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총회의 상임 위원회와 전권 위원회의 화상 회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새로운 노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칸소주 대부분의 지역으로 구성되는 아칸소 노회는 2026년 7월 1일에 출범하였습니다. 스모키 마운틴 노회는 테네시주 동부의 19개 카운티로 구성되고, 2027년 1월 1일에 시작됩니다. 또한 총회는 알래스카, 하와이, 오레건과 워싱턴주를 한인 서북 노회의 구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외에, 피츠버그 노회와 오하이오 노회의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피츠버그 노회 소속이던 오하이오주 내의 모든 카운티들은 오하이오 노회로 이관되었습니다.

통과된 다른 헌의안들로 인해 총회는 2025년에 교회들에서 보고된 성인 신앙고백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고, 성경적 남성성 여성성 협의회(Council of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의 댄버스 선언(Danvers Statement)이 성경적으로 신실한 선언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총회는 총회의 성찬식 집례 시 포도주가 다른 대안들(예: 포도주스, 무알코올 포도주)에 더하여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이 외에, 총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 장로교의 모든 지교회들이 미국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것을 권장했습니다.

타 교단들과의 관계

미국 장로교는 19개의 타 교단들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내에 있는 정통 장로교회(OPC)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와 같은 미국 내 교단들이 있으며, 해외 교단들인 브라질 장로교(IPB)와 멕시코 국립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총회는 호주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중동부 유럽 개혁 장로교회, 그리고 영국, 유럽 및 한국에 교회를 두고 있는 국제 장로교회(IPC)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스코틀랜드의 자유 교회(Free Church of Scotland)와도 관계를 확대하였습니다.

Conclusion 결론

제 53차 총회는 신중한 의사 결정, 사명에 대한 헌신,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린 것 등을 통하여 충성되어 사역하는 교회의 강렬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총대의 여러 위원회들의 세밀한 실무 작업에서부터 각 기관과 위원회 보고서들을 통한 격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쁨 충만한 예배의 순간들로부터 엄숙한 성찰의 시간들에 이르기까지 이번 한 주간은 생명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각 위원회와 기관의 하이라이트는 교리와 실천과 사명에 신실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단임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총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에 대한 희망, 연합과 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위로와 능력을 증거하였고, 이는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총회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총회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총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모든 회무를 완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깨달아 다가올 한 해에도 사역을 계속해갈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프레드 그레코, 미국 장로교의 서기.